탄소섬유 '프리프레그' 신규 진출 도레이첨단소재, 복합재료 시너지

SK케미칼 울산·중국 사업 인수
친환경 경량화소재 경쟁력 강화
車 넘어 레저 분야 등 제품 개발

도레이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중간기재 '프리프레그'에 신규진출 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탄소섬유 중간재인 프리프레그(Prepreg) 사업에 신규 진출하며 탄소섬유복합재료의 사업 시너지를 높여 나간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SK케미칼 울산, 중국 칭다오의 프리프레그 사업을 300여억원에 인수했다고 5일 밝혔다. 프리프레그에서 연간 1600여만㎡의 최대 규모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섬유복합재료 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인수로 미드 스트림(Mid. Stream) 분야로 서플라이 체인을 넓히고 체계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내외로 공급망을 확장해 친환경 경량화 소재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성능, 고품질의 탄소섬유와 가공성이 탁월한 프리프레그 공급으로 수소차, 전기차,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의 모빌리티 용도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의 풍력발전 블레이드 등 산업용 분야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낚싯대, 골프채, 자전거 등 레저스포츠분야에서도 제품 개발력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구미와 울산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와 프리프레그는 내수는 물론 수출을 확대하고, 칭다오를 중심으로 중국 프리프레그 시장에 대응한다. 첨단복합재료테크니컬센터를 통해 용도개발과 기술서비스 지원에 주력해 복합화, 경량화 요구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 환경·에너지, 항공기,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용도 개발에 집중해 탄소섬유 복합재료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레이첨단소재는 탄소섬유 원사부터 직물, 페이퍼, 팰렛(Pellet), 촙드(Chopped) 화이버, 밀드(Milled) 화이버, 라미네이트 등 각기 다른 강도와 탄성을 갖춘 제품을 고루 갖추고 있다. 각종 산업의 광범위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오른쪽)과 기욤 포리 에어버스 최고경영자(CEO)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A220 항공기 최우수 운항사에 대한항공

1년간 운항정시율 99.63% 기록

대한항공이 전세계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에어버스사의 A220 항공기를 가장 완벽하게 운항하는 항공사로 선정됐다.

대한항공은 현지시간 10월 4일 미국 보스톤에서 IATA 주관으로 열리는 IATA 연차총회에서 'Airbus A220 Best Operational Excellence 2021'을 수상했다.

에어버스사는 비행시간 및 횟수 등 운항 실적을 고려한 운항 정시율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사 생산 기종에 대해 매 2년 마다 최우수 운영항공사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A220 기종에 대한 최우수 운영항공사 선정은 올해가 처음이다.

대한항공의 A220 기종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세계 항공사들 중 가장 높은 99.63%의 운항 정시율을 기록한 바 있다. A220 항공기 세계 평균 운항정시율은 약 99% 수준이다.

운항 정시율은 항공사의 항공기 운항능력을 검증하는 대표적 국제지표로 항공기가 정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 없이 계획된 출발 시각으로부터 15분 이내에 출발한 횟수를 전체 운항 횟수로 나누어 산출한 백분율이다.

운항 정시율 99.63%는 항공기 1000회 운항 시 정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나 결항이 3.7회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운항 정시율이 높다는 것은 정비 원인으로 인한 지연·결항 편수가 적다는 것으로 그만큼 항공사가 사전에 철저한 예방정비와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승객 서비스 및 안전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A220 항공기는 현재 11개 항공사에서 174대가 운영 중이며, 대한항공은 지난 2017년 A220 항공기를 첫 도입 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모닝·레이 상품성 개선… 캐스퍼와 경쟁

기아, 현대차와 경차시장 경쟁구도
신규트림 '베스트 셀렉션' 출시·판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경차 시장에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가 19년 만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으로 내놓은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캐스퍼'가 출시와 함께 흥행몰이에 나서자 기아도 모닝과 레이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본격 경쟁에 나선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경차 선택폭은 확대되고 있다.

5일 기아는 모닝과 레이에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한 신규 트림 '베스트 셀렉션'을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경차 시장을 대표하는 모닝과 레이는 ▲스탠다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트림으로 판매 중이며, 베스트 셀렉션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기아는 모닝 베스트 셀렉션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열선 스티어링 휠 ▲블랙 / 레드 포인트 신규 인테

기아 모닝-레이 베스트 컬렉션 외관.

리어를 기본 적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모닝만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레이 베스트 셀렉션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후방카메라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15인치 전면가공 휠 ▲뒷좌석 열선시트 ▲고급형 센터콘솔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윈도우로 구성돼 높은 상품성을 자랑한다.

베스트 셀렉션 트림의 판매 가격은 모닝 1450만원, 레이1560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높은 상품성을 갖춘 모닝, 레이의 베스트 셀렉션 트림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고객 선호 사양을 대거 반영한 베스트 셀렉션을 통해 경차 시장에서 스테디셀러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가 내놓은 경형 SUV 캐스퍼는 온라인 판매 첫날인 지난달 14일 하루 1만8940대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2만 5000여대의 사전 예약이 접수될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캐스퍼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뛰어나고 디자인이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내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양성운 기자

GS칼텍스, 이케아 상품 주유소 픽업서비스

강남구 삼성로 주유소서 상품 수령

GS칼텍스가 이케아와 손잡고 주유소 물류 거점 사업에 나선다.

GS칼텍스는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로 주유소에서 국내 최초로 이케아 '주유소 픽업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주유소를 중간 거점으로 활용하는 픽업 서비스는 온라인 구매 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배송 형태다. 이케아 고객이 거주지 인근 GS칼텍스 주유소를 배송지로 선택하면 이케아가 지정된 주유소에 상품을 배송하고, 고객은 주유소에 방문해 직접 상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가구 상품의 특성상 큰 부피와 무게로 인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고객들은 픽업 서비스 해당 규격 상품에 대해 기존 배송비보다 낮은 가격인 1만9000원에 배송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이번 삼성로 주유소의 픽업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평택, 천안, 대전, 대구, 창원을 포함해 전국 6개 주유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고객 반응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 주유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GS칼텍스 삼성로주유소 픽업 서비스 공간 이미지.

또 GS칼텍스는 이케아 뿐만 아니라 도심의 소형 물류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기업들과 협업해 물류 공간을 임대하거나 부분적 물류 프로세스를 대행하는 공유형 창고 형태의 픽업 포인트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주유소는 물류 차량 진입 및 적재 공간에 강점이 있고 전국에 분포돼 있어 물류 거점화에 적합하다"며 "미래형 주유소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물류 거점 사업을 비롯해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카셰어링' 그린카, 기아 EV6 100대 도입

운전자 보조시스템 탑재 '어스트림'

카셰어링 전문 업체 그린카가 기아 EV6 100대를 신규 투입한다.

5일 그린카에 따르면 이번에 투입되는 기아 EV6는 롱레인지 모델 어스 트림이다.

어스 트림은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탑재했다.

기본적인 ADAS 외에도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2(차로 변경 보조기능 포함), 전방 주차 거리 경고 등의 기능이 포함됐다. 이 밖에 고급 나파가죽시트, 프로젝션 발광다이오드(LED) 헤드램프, 서라운드 뷰 모니터 등이 장착됐다.

EV6는 수도권 '그린존' 100곳에서 이날부터 이용 가능하다.

심원식 그린카 사업본부장은 "기아가 공개한 400m 드래그 레이스에서 람보르기니 우르스, 벤츠 AMG GT, 맥라렌 570S, 포르쉐 911 타르가4, 페라리 캘리포니아T 중 EV6 GT가 당당히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며 차량 성능에 신뢰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린카는 지난 13일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실천 중에 있다.

이번 EV6 차량 도입 등으로 올해 K-EV100 선포식에서 언급한 2030년까지 친환경 차량으로의 교체를 이행 중이며 연말까지 그린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행동강령 서약식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